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¹⁾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이들의 생활세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임. 또한 지역단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성장시키고 자립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모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적 패널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와 자신에 대한 인식과 현재 겪고 있는 생활세계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책임자, 실무자, 이용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을 탐색하였음. 또한 국내·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사례를 파악,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무업화 예방 정책의 필요성, 대안교육적 지원의 필요성, 직업형과 무업형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 지역사회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우선, 학령기 진로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 20대 무업청소년의 발굴과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또한 단순한 검정고시나 복학을 장려하는 것이 아닌 동기강화,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등의 대안교육적 지원이 필요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생활권을 고려하여 다양한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은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까지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년 고유과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를 발췌·요약한 것임.

1. 연구 목적 및 내용

- ▶ 본 연구는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이들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계, 개인적 경험사건, 지역사회, 새로운 집단과의 사회관계 등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질적 패널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또한 지역의 특성, 지역별 청소년의 요구와 여건, 지역별 기관의 특성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역단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성장시키고 자립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에 목적이 있음.
- ▶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질적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5년간의 경험, 학업중단의 계기, 학업중단 이후의 삶과 인간관계의 변화, 자신의 미래상과 의욕수준, 지역사회의 도움 등을 분석함.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모델 탐색을 위해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책임자, 실무자와 이용 청소년에 대한 면접을 통해 기초조사를 실시함.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 진로직업교육정책, 견습제도, 국가역량체계, 평생교육정책, 청소년시설 등 국내·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역정책 사례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2. 연구결과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조사 및 지역사회 기초조사 결과

1) 학업중단 이유와 영향력

- 학업중단의 이유: 졸업을 위해서는 검정고시가 시간적·비용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생각,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고 싶은 생각,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회의감 등 학교를 다녀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게 보고되고 있음.
- 학교의 회고적 의미: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울타리, 친구들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사회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등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으나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 답답하고 의미 없는 곳이라는 반응도 많았음.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과정 정착이 필요함을 시사함.
- 학업중단에 대한 정서
 - 부정적 정서: 정상적인 루트에서 벗어났다는 생각, 취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우울함,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지루해지는 일상과 학교 다니는 친구에 대한 부러움, 생각지 못한 난관, 소속감이 없는 불안감 등을 느꼈음.
 - 긍정적 정서: 긍정적인 해석도 많았음. 진로, 적성탐색, 대학진학의 동기부여로 작용하거나 해방감과 자유로움, 주도적인 선택, 책임감 등을 느꼈음. 또한 사회경험도 빨라지고 대인관계도 넓어졌으며 적응력이 생기는 등 성장함. 실현 가능한 진로를 찾기도 했고 실행하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경험을 했음. 인간관계 대처기술도 개선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마음이 넓어짐.

2) 성인기 이행과정의 고민

- 진로, 직업, 생계 관련 고민이 많음: 안정적 직업을 찾고는 싶으나 준비과정이 막막함, 불안정한 취업과 퇴사의 반복, 불투명한

- 취업에 대한 불안, 학업능력부족으로 인한 학업지속의 어려움, 생계유지나 가족부양 등 경제적 문제 등
- 이 외에 자살충동과 같은 부정적 정서, 군입대 지연에 따른 불안감, 고민이 초점화 되지 못함 등이 보고됨

3) 학업중단 이후 인간관계의 변화

- 가족관계: 중단 초기에는 의사소통 문제, 중단에 대한 염려, 생활방식의 문제, 부모님의 인내심 한계 등으로 갈등이 있었으나 소통방식의 개선, 검정고시 합격, 가정경제에 보탬이 됨 등의 성과로 관계회복이 진행되었음.
- 친구관계: 학업중단 이후의 친구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었다는 의견, 학업중단 이전 친구들이 더 소중해졌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생활패턴이 달라져 친구관계의 범위가 작아졌다는 의견이 많았음.

4)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만족 여부

- 현재 공부를 하는 경우: 주로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 복학, 상급학교 진학 등이 있었음.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공부이거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선택한 공부가 너무 어렵고 성적이 나빠서, 돈이 없어서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불만족하는 경우가 있었음.
- 일을 하는 경우: 상당수가 단순 아르바이트가 많았고 진입장벽이 낮은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았음. 대체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진로와 상관이 없거나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친다는 점, 일이 많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 아르바이트 생활 반복으로 인한 주변의 시선 등으로 불만족스럽다고 보고함. 반면 경력 상의 이점, 전망 있는 분야, 적성에 맞는 일, 돈을 벌 수 있고 업무가 편하다는 이유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었음.
- 군복무/군 입대 대기: 대부분 미래설계가 지연되고 있었음. 진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며 군대 제대 후 준비하고자 한다는 응답이 상당수임. 부정적 인식으로는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곳, 스펙의 걸림돌 등이 있었으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도 있었음.

5) 청소년의 미래관과 의욕·동기 수준

- 자립이란: 물리적 독립,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으로 나뉨
-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 대체로 취업준비와 진학·진로에 집중되어 있음. 소수의 청소년들은 형편 상 돈을 벌어야 하거나 거처마련을 위한 저축 계획 등을 피력함.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회피해 버리거나 불안과 걱정에서 휩싸여있는 청소년이 있었음.
- 의욕과 동기 수준: 자격증, 공부, 일, 친구 사귀기 등 의욕을 보이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의욕은 있으나 시작하기 힘들고 자신감이 없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청소년도 있었음.

6) 청소년이 인지하는 지역사회 및 도움 받고 싶은 영역

- 청소년에게 '지역사회'란 대체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닿고 접할 수 있는 곳이었음.
-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여부 및 도움 받은 영역
 - 지원받지 못함: 정보를 모르거나 지역자원이 한정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와 학업중단 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지원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은 내용: 주로 검정고시, 학습멘토링, 지역 청소년센터 문화행사 참여,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생활비 등 복지적 도움, 숙려제 상담 등의 도움을 받았음.

-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요청 사항

-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외국어공부를 위한 경비나 프로그램 지원, 취업현장에 있는 전문가 코칭, 일자리 지원, 취업관련 정보제공 등 학업, 진로직업, 취업에 대한 요구가 많은 편임.
- 그 외에는 또래관계 네트워킹 등의 인적자원 지원, 건강검진 및 거주지 등의 생활지원,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을 요구함.
- 학업중단 후 지원 절차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이후 진로설정, 생활계획에 대한 매뉴얼 제공, 지원 절차의 간소화,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사회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안내, 취업박람회 등의 종합적인 정보제공 기회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대처

- 많은 참여자들이 차별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한 내적갈등을 보고함. 비행청소년으로 여겨지거나 대학진학, 취업, 진급, 문화 활동, 아르바이트 등 생활 전반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었음.
- 이러한 차별에 대해 상당수는 사회에 대한 원망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자책, 타인과의 비교평가로 인한 자존감 저하 등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음.

8) 이행경로별 진로 관련 변인의 차이

- 학업형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직업형과 무업형은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이나 의욕 부족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진로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부족하다고 느꼈고, 이들이 원하는 정보는 해당분야의 실제적인 정보였음.
- 미래에 대해 학업형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 직업형과 무업형은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음.

9) 지역별 특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 지역특성
 - 대도시: 빈곤지역으로 결손가정 청소년이 많아 위기상황, 비행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이 많아 서비스를 적시에 받기가 어려움.
 - 중소도시: 지역네트워크가 원활한 편이며 저소득층과 특성화고의 학업 중단이 많은 편임.
 - 읍면지역: 교통시설과 인프라 및 경제활동 장소가 부족해 청소년이 인근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음.
- 학업중단 이후 생활
 - 공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생활패턴이 불규칙해지는 것이 특징
 - 대도시와 중소도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으며,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청소년들은 비행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특히 읍면지역은 대인기피,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를 갖는 청소년이 많고 무기력하게 지내거나 도박, 성매매 등의 위기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
-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 공동: 검정고시 합격, 진로 찾기, 취업 연계와 경제적 지원 등이 보고됨.
- 대도시: 생활비 지원, 검정고시 프로그램, 대학탐방 견학 프로그램, 다양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공간
- 중소도시: 의식주 문제해결, 아르바이트 및 취업연계, 교통편 부족으로 인한 셔틀버스
- 읍면지역: 취업과 자립을 위한 훈련 지원과 취업연계, 체계적인 검정고시 지원 프로그램, 동아리활동과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및 기관에 또래 친구가 많기를 원함.

▶ 국내·외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비교 및 시사점

1) 한국의 청년정책 현황

- 청년정책의 형성 배경이 대졸 청년실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에 초점을 둔 정책 또한 중시되어야 함.
- 청소년정책에서도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학교를 이탈하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의 직업 세계와 만나며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와 더불어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함.

2) 국내·외 진로직업교육 현황과 시사점

- 스코틀랜드의 Skills Development Scotland는 진로직업교육의 전달체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직업정보 및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16~19세 청소년의 진로직업훈련을 뒷받침하고 있음.
- 한국은 단순히 체험 위주의 진로체험처를 확대하는데 그치고 있음.
- 학교-직업 전환과정을 원활히 해야 함: 진로를 찾고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직업교육의 강화가 필요함.

3) 국내·외 견습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 아일랜드, 스웨덴, 스코틀랜드는 견습을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매우 중시하고 활성화하고 있음. 한국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중심으로 도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술 직렬에만 제한되어 있거나 특성화고 일부학과에만 적용되고 있음.
-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수요 충당을 위한 대책 마련과 견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함.
- 견습교육을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는 기관 설치가 필요함.

4) 국내·외 국가역량체계와 시사점

- 아일랜드의 국가역량체계는 학교 밖 어디에서나 학습을 하든 동일한 수준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시안만 논의되었을 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임.
- 학교, 평생교육, 직업교육, 대학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계열화되고 일원화된 청소년의 진로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함.

5) 국내·외 평생교육 현황과 시사점

- 유럽의 평생교육은 학력, 자격, 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설계되어있어 중등학교 학력취득은 물론 일반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고 직업교육도 받을 수 있음.
- 한국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외에는 중고등학교 학력 취득이 어려운 상태임.
- 평생교육이 학교교육의 보완재가 아닌 학교교육과 연계, 통합된 교육체제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6) 국내·외 청소년시설 기능 비교와 시사점

- 외국의 청소년시설에는 청소년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및 직업경험 제공, 대안학교, 창업교육, 비행청소년 취업 지원 등의 복합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은 청소년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청소년의 필요에 맞는 사업개발이 필요함: 직업훈련, 취업지원, 자기주도형 학습프로그램,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학력 및 자격인정 프로그램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7) 스웨덴의 학교교육과정의 주는 시사점

- 스웨덴은 직업계학교가 별도로 없고 일반학교에서 직업교육과정과 대학입학과정이 운영됨. 9년제 기초교육을 마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문과정도 개설하는 등 유연하고 개방적임.
- 한국은 입시위주의 교과목이며 교육과정 유연화가 어려운 상황임.
- 학점제 도입과 더불어 교육과정계열 다양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8) 국내·외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비교와 시사점

- 유럽은 무업청소년발굴을 위해 학교장의 신고, 데이터 허브 구축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스웨덴: 지역당국이 책임지고 접촉을 시도하며, Job center에 등록된 청소년만이 사회복지수당을 수령할 수 있음.
 - 스코틀랜드: 16+ Data Hub를 통해 무업청소년을 발굴함.
- 한국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리스트, 경찰 및 보호관찰소와의 연계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 학교 밖 청소년 데이터허브를 구축하고 지자체에서 교육기본수당을 연계해야 함.

9) 지역 당국의 무업청소년정책과 시사점

- 유럽국가와 일본 모두 일찍이 무업청소년에 주목하여 정책을 개발해 왔음.
 - ex) 아일랜드의 Youthreach, 스웨덴의 Job center, 일본의 은둔형외톨이 지역지원센터
- 한국은 무업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정책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임.
- 무업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개발이 필요함.

3. 정책제언

▶ 영역 1. 무업청소년 지원대책 강화

- 과제 1. 청소년사회보장제 도입
 - 학령기 청소년이 학교 안에 있던, 학교를 떠나 던 만 18세까지는 학업 및 직업훈련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함.
- 과제 2. 무업청소년 발굴체계 구축
 - 스웨덴, 스코틀랜드는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등록 촉진, 학교장의 신고제, 데이터 허브 구축 및 관리 등의 방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발생과 발견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더불어 데이터허브 구축, 관리가 필요함.
- 과제 3. 무업청소년 분류와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 무업 청소년의 상태, 취업능력 등을 고려한 상세한 분류와 평가가 필요함.
- 과제 4. 무업청소년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진로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 무업청소년은 동기강화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상담부터 교육훈련, 취·창업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함.

▶ 영역 2.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대책 강화

- 과제 5.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직업교육 강화: 진로직업전문가 확충
 - 학교 밖 청소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진로직업교육 및 상담임.
 - 꿈드림센터 인력 총원 시 진로직업전문가, 사례관리자 등을 총원하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과제 6. 일학습병행제 TYPT II 개발
 - 취약·위기청소년들이 일하면서 학력도 취득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III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과제 7.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립작업장 설치
 -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연계할 수 있는 지역자원이 제한적이므로, 지역사회 내에 별도의 전문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제 8. 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작업장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
 - 20대 초반 후기 학교 밖 청소년은 구직과 자립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이들을 위한 체험위주, 실습위주, 작업위주의 청소년시설 설치가 필요함.

▶ 영역 3. 꿈드림센터 서비스 및 운영 개선

- 과제 9. 대도시 구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 대도시는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구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과제 10. 검정고시 대비 집중 프로그램 개발·운영
 -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은 검정고시 대비를 위한 캠프 형태의 집중프로그램을 우선 개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과제 11.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은 발굴 기제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과제 12. 꿈드림센터 독립 공간 확보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쉼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독립공간이 필요함.
- 과제 13. 오후와 야간, 휴일 근무체계를 갖춘 꿈드림센터 시범 운영
 - 청소년들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 꿈드림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과제 14. 학업중단 숙려상담이나 학업중단 이후 학부모 상담 병행 실시
 - 현재의 숙려상담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부모 상담 및 부모와 청소년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영역 4. 다양한 전달체계 확보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생태계 구축

- 과제 15.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거점지원시설로 확보
 - 현재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복합지원시설로서의 기능이 취약함.
 - 청소년수련관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능(대안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의 기능 전환을 모색해야 함.
- 과제 16.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훈련과 자립을 위한 지역 생태계 구축
 -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 특성과 요구는 매우 다르나 꿈드림센터가 이러한 요구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임.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아웃리치와 보호시설, 교육기관,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기관, 지역사회 작업장 및 일자리 개발, 취·창업 연계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지역 내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함.

▶ 영역 5. 교육체제의 통합적 개편과 개발물의 공유·활용

- 과제 17. 국가역량체계 도입을 통한 학교 안과 밖의 교육연계
 - 학교와 청소년 시설,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등이 호환될 수 있는 자격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통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18.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발물 공유·활용
 -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개발물을 교재나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함.